

발레서 승무까지 부처님 말씀 춤으로 되새긴다

제 1회 불교무용대전 참가팀 확정... 7월 3일~26일 스튜디오 SK서



불교무용대전 포스터

현대불교신문사가 후원하고 불교문화단체 (주)구슬주머니·(사)한국춤예술센터가 주최하는 제 1회 불교무용대전(고문 김복희·프로듀서 이철진)의 참가팀과 프로그램이 확정됐다.

7월 3일~26일 매주 금·토·일 대학로 소극장 스튜디오 SK(성균소극장 2관)에서 열리는 불교무용대전은 4주에 걸쳐 10개 팀이 공연을 펼친다.

공연은 △넛진춤-전 아리랑(한국전통넛진춤 연구보존회)△세 가지의 업 (심현주-dance with us) △쌍승무(정우정연 무용단) △태평사자놀이(우리소리연구회-솃

대) △무어행 (강용기, 라온댄스컴퍼니) △승무(홍은주) △다비(댄스컴퍼니 Joon-mo) △반조(in us move) △천개의 공(空) (임선영 Im dance project 10) △관무량수경 (댄스컴퍼니 마목) 등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정우정연 무용단의 '쌍승무'는 조선의 마지막 궁중 춤의 선생이었던 이상선 명인으로부터 남원의 조각녀로 이어진 승무를 쌍승무로 재구성 그 어떤 것도 확정 짓지 않는 자연스러움의 몸체를 보여준다. 하나가 둘이 되고, 다시 둘이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을 호흡에 집중해 내면의 균형을 찾아 우주의 기운과 내가 하나 되는 의미를 담아낸다.

홍은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춤 한영숙의 '승무'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를 보여준다. 엄블로 시작해 느린 도드리에서 타령, 빠른 도드리에서 굿거리장단으로 변화하는 민속음악에 맞추어 안무가 진행되다가 북을 치며 마무리되는데, 이는 인간의 번뇌를 장단의 전개 속에서 풀어내는 과정이다. 긴장감의 여운은 희노애락을 녹여내리며 진정한 기도의 춤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댄스컴퍼니 Joon-mo'의 '다비'는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길'을 주제로 인간의 모든 업장을 흙과 물, 불, 바람의 사

대 지수화풍에 맞추어야 그 업장은 소멸되고 완전한 자유인이 된다는 '다비'의 철학을 몸짓 언어로 옮겼다.

'임선영 Im dance project 10'의 '천개의 공'은 불교 '천도제'를 춤으로 승화시켜 삶과 죽음은 늘 우리와 함께 존재함을 보여준다. 천번의 비움, 몸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며,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그 세계를 몸짓으로 보여준다.

**쌍승무-이상선 명인 춤 재구성
천개의 공-죽음의 의미 되새기
관무량수경-자유 이르는 길 제시**

마목무용단의 '관 무량수경'은 불교 수행을 통해 자유에 이르는 길을 보여준다. 이 공연은 <관무량수경>의 스토리를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안무자 스스로가 16관법을 행하고 관하면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의 작품을 주목한다. 경전에 근거해 16관법을 행하면서 일어나는 일체의 안무 행위가 곧 '관 무량수경'으로 탄생한 것이다. 이번 대전에는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공연이 대부분으로 불교를 소재로 하는 전통



제 1회 불교무용대전이 7월 3일~26일 매주 금·토·일 대학로 소극장 스튜디오 SK(성균소극장 2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전에서는 4주에 걸쳐 10개 팀이 공연을 펼친다. 사진은 정우정연 무용단의 '쌍승무'.

제1회 불교무용대전 일정

날짜	공연명	단체
첫째주 7월 3일 ~ 7월 5일	넛진춤 - 넛진 아리랑 세 가지의 업	한국전통넛진춤 연구보존회 심현주-dance with us
둘째주 7월 10일 ~ 7월 12일	쌍승무 태평사자놀이	정우정연 무용단 우리소리연구회-솃대
셋째주 7월 17일 ~ 7월 19일 무어행	강용기, 라온댄스컴퍼니 승무 다비	홍은주 댄스컴퍼니 Joon-mo
넷째주 7월 24일 ~ 7월 26일	반조 천개의 공(空) 관 무량수경	in us move 임선영 Im dance project 10 댄스컴퍼니 마목

춤에서부터 발레 현대무용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불교문화단체 (주)구슬주머니 이

철진 대표는 "첫 대회인데 이렇게 큰 반응을 보여줘 매우 만족한다. 4주 동안 세 팀이 한 조가 되어 단독공연과 단체 공연을 펼친

다. 발레 현대무용 전통무용이 모두 포함되어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불교무용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라며 불교무용대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무대를 통해 잠재적인 불자를 양성하고 문화 포교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불교무용대전은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새로운 창작작품도 공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재정적인 면에서 아직 어려운 점이 많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02)747-5035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서양화법 도입한 근대 불화 눈길

부산시립박물관 지운영필 관음도 공개



지운영필 관음보살도

부산시립 박물관이 '신수유물소개전'을 8월 30일까지 연다. 부산박물관이 최근 입수한 기증·수탁 유물이나 보존처리가 끝난 유물들을 소개하는 전시로, 이번 전시에서는 최근 보존처리를 완료한 '지운영필 관음보살도' 등 총 3점을 공개한다.

'지운영필 관음보살도'는 관음보살이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연꽃잎 위에 서 있는 관음도이다. 사녀(仕女) 도상의 머리형을 하고 있으며 화불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왼손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데, 오른손으로 받치고 있는 잔에 살짝 담고 있다. 육신부는 먹선 위에 붉은 색을 더하여 신체의 생동감을 살리는 전통적인 인물화의 묘법이다. 그러나 안면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콧망울과 인중 등 요철부에는 서양화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작품을 조성한 백련 지운영(白蓮池雲英, 1852~1935)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활동했던 근대의 대표적인 지식인 중 한 사람으로 종두법을 도입한 지식인의 친형이다. 이 작품은 지운영이 남긴 유일한 불화이다. 형식 및 화법적 특징을 종합해 볼 때 근대기 김은호(金殷鎬, 1892~1979) 등이 즐겨 그렸던 미인도의 특징과 일치하며, 사진술에서 착안한 서양화법을 인물의 안면 묘사에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051)610-7137 정혜숙 기자

제주의 산·바람... 찰나 순간 화폭에

이종송 작가 개인전 6월 28일까지 류미재갤러리서



이종송 작가는 제주의 풍경을 명상을 통해 그려냈다.

휴복화 기법에 천연안료라는 흔치 않는 기법으로 히말라야의 수천미터 높이 계곡들의 넘치는 강렬함을 화폭에 담아낸 이종송 작가(건축대 회화와 교수)가 이번에는 제주를 찾았다.

이종송의 개인전 '움직이는 산·바람'이 6월 28일까지 경기도 양평 류미재에서 열린다. 작가는 40일 동안 제주에 머물며 작업한 30여 작품을 통해 모진 역경의 바람과, 때로는 눈물나는 감동의 햇살과 신비한 생명력을 가진 제주의 자연을 선사

한다. 그리고 그 속에는 명상을 통해 자연과 내가 하나되는 과정을 담아낸다.

"아침 일찍 일어나 숙소에서 도시락을 싸들고 걸어서 여행지로 가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순간에 집중하다보면 그것이 또한 명상이죠." 인도 등을 여행하며 명상법을 익혔다는 작가는 "저에게 있어 여행이 곧 작업이요 작업이 곧 여행입니다. 그리고 늘 작업 전에는 고요히 명상에 들죠. 주로 호흡명상을 하는데 마음을 조용히 맑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자연과 대화를 하죠. 그 찰나를 화폭에 담아냅니다"라고 말한다.

작가는 제주의 모습을 자연이 만든 감성적 창작물처럼 여긴다. 더 나아가 바람의 흐름에 따라 누워있는 나무들이나, 오랜 세월을 지내며 둥글고 신비롭게 형성된 지형들을 보며 바람 자체를 생명의 존재로 표현했다. 그림을 보고 있으면 제주의 바람이 만들어 준 소리가 노래처럼 들릴 것 같은 것도 작가의 감동과 명상적 직관이 담겼기 때문 이라다. (031)774-8868 정혜숙 기자

20주년 기념공연 '사랑은 비를 타고'

8월 30일까지 대학로 유니플렉스 2관서



'사랑은 비를 타고' 20주년 기념공연이 유니플렉스 2관에서 펼쳐진다.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이하 사비타)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왔다. 20주년 기념공연으로 무대에 오르는 '사랑은 비를 타고'는 제 2회 한국뮤지컬대상 음악작곡상을 수상한 최귀섭 작곡가와 제 1회 한국뮤지컬대상 극본상을 수상했던 오은희 작가가 다시 뭉쳐 신화를 이룬다. 특히 이전의 사비타가 가지고 있는 유쾌함과 감동은 물론 초연 되었던 1995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살리며 세 주인공인 동욱, 동혁, 미리에 대한 조금 더 깊

이 있는 캐릭터적 해석을 더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뮤지컬 '사비타'와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김성기와 독보적 코믹 연기로 자리를 굳힌 임기훈, 조유신을 비롯, SS501의 김규중, 크레용팝의 웨이와 개그맨 문세윤, 장도연이 합류했으며,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오디션 을 통과한 김종선, 임정환, 양동원, 손예슬, 박현지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한편, '사랑은 비를 타고'는 1995년 남경옥, 남경주, 최정원이 출연하며 초연된 당시, 순수 창작 뮤지컬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1996년에는 제2회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음악작곡상, 남우연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했다. 그 후 2011년까지 3,000회 이상 공연, 매회 객석 점유율 80%를 상회하는 등 평단과 대중의 사랑을 동시에 받았다. 공연은 8월 30일까지 대학로 유니플렉스 2관에서 열리며 R석 50,000원 S석 40,000원이다. (02)543-7727 정혜숙 기자

대원 불교 미술원

청동불사 조성(제작) 전문

청동불상, 개금, 탱화, 단청 일체

진실과 원칙, 최고의 재료로 부처님 조성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 많은 조연과 믿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스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 임영달 합장






경기 포천시 내촌면 진목 1리 915-14
전화 031)532-3722 | 010-7171-2636 | 팩스 031)533-3722
이메일 lyd5798@naver.com

청정지역 거제멸치

여름철 입맛이 떨어질 때...
불자님 밀반찬으로...
멸치 하나로 칼슘을 섭취

- 당일 즉석 건조하여 신선도 유지
- 직거래 유통으로 가격이 저렴
- 청어 멸치는 거제 가조도(섬)에서만 잡힘(청정지역)
- ※ 불자님과 사찰스님께서 필요하신 신도님이 함께 구입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 10박스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 멸치에는 일반멸치와 청어멸치가 있음
- ※ 주의 : 가격은 시기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고 멸치의 크기도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농협 352-0211-4308-13 (예금주: 박동열)
구입문의: 055)633-9766 / 010-7169-9878
거제 금룡정사 대정 스님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옹골케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힘찬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